

## 2004 울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6.20 시행)

### < 출제평 >

비교적 변별있는 출제로서 문2의 경우 실무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강의 때 강조했던 신경향의 문제(티부가설)도 출제되었으며 선행정책개론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2)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9급 행정학도 점차 실무적이고 깊이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이러한 몇몇 문제들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아래 문제는 문제복원이 완전하지 않아 현 상태로는 정답을 단정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으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 01. 다음 중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이 아닌 것은?

- ① 표준운영절차(SOP)
- ② 매몰비용의 고려
- ③ 정보의 불충분(과소)
- ④ 막료기능의 강화
- ⑤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답) ④ 표준운영절차에 너무 얽매게 되면 합리적 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창조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참모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지원을 받음으로서 보다 양질의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참모기능의 강화는 제약요인이 아니다 (선행정책개론 p.267).

### 02. 우리나라의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을 제출한 후 최종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 ③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이미 제출한 예산안이 예비심사나 종합심사 중에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함께 심사하고, 심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답) ①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 없지만 수정예산은 1970년도와 1981년도 예산의 경우 수정예산이 제출된 적이 있다. 수정예산이 제출되게 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상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예산편성후 국제정세나 국내의 경제사회적 변화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②③④⑤는 예산회계법상 모두 맞는 말이다.

### 03. 행태론에 관한 설명이..

### 04.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신분보장이 안된다.
- ② 직위분류제에 더 가깝다.
- ③ 승진시 재직자와 민간인 중 개방적으로 심사한다.
- ④ 행정구조의 분화형

(답) (정답유보) 개방형직위제는 그간의 폐쇄형인사제도가 갖는 문제점(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한 복지부동, 공직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경력직)이 아닌 계약직공무원(특수경력직)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는 직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 05. 다음 중 생태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②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사전에 예견하여 대비한다.
- ③ 조직의 기술적 핵심을 확장한다.
- ④ 다단계와 인원의 증가로 잉여자원을 늘리고 산출을 다양화한다.
- ⑤ 외부에서 중요한 조직이나 사람들을 수용하여 조직을 확장한다.

(답) ⑤ ①비축 ②예측 ③성장 ④예측 및 성장으로 모두 완충전략이고 ⑤는 적응적 흡수 (Co-optation)로 연결전략이다.

### 18. 조직의 동태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 19. 주인인 주민들 스스로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은?

- ① 발로 하는 투표                      ② 끈끈이 인형효과                      ③ 주민선호이론

(답) ① 설문은 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정부를 선택한다는 티부기설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183).

### 20. 비용편익분석 중 B/C분석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B/C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한다.
- ②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 ③ B/C기준은 외부효과를 비용이나 편익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 ④ B/C분석과 현재가치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

(답) ④ B-C, B/C기준은 할인율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만 내부수익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할인율이다. 즉,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②의 경우  $B-C > 0$ 이거나  $B/C > 1$ 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④의 경우 사업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B/C분석과 현재가치법의 결과가 같게 나오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선행정학개론 p.296).